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4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전 세계 이모지서 '사찰' 왜 누락됐나

'유니코드 협회'가 이모지 보급
협회 측 '표준코드' 설정 돼야
온라인 의사소통서 사용 가능
주요기업 이모지에 '사찰' 없어
'글로벌 전법' 걸림돌 우려 제기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불교 '사찰' 이모지가 없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모지 누락 배경에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이모지를 배포하는 '유니코드 협회(Unicode Consortium)'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서 이모지를 제공받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삼성과 같이 불교 사찰 이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유니코드 협회는 '그림문자'인 이모지를 제작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배포한다. 이모지도 하나의 문자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코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협회가 이모지 표준코드 개발을 담당한다.

만들어진 표준코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화웨이, 조이픽셀스 등 전 세계 기업으로 발송하고, 코드를 받은 기업은 각 사의 개성에 맞춰 이모지 디자인을 변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유니코드 협회 소속 이모지 검색 도구인 '이모지피디아(Emojipedia)'에 따르면 협회가 제작한 이모지는 총 3600개에 달한다. 유니코드 협회에서는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92%가 의사소통에서 이모지를 사용한다"며 "3600개 이상의 이모지가 얼굴, 날씨, 차량 등 다양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홍보한다.

협회가 배포하는 종교 장소 관련 이모지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와 대표 성지 '메카', 힌두교 사원, 유대교 회당, 일본 토속종교 신도의 '신사' 등 6곳으로 불교 사찰은 제외됐다. 삼성의 갤럭시 이모지에서 사찰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유니코드 협회가 운영하는 이모지피디아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기념일 코너(이벤트&토픽)'를 만들어 이웃종교 기념일 이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힌두교 축제 등불을 나타내는 '디왈리',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이슬람교의 신성한 달인 '라마단'은 물론, 아일랜드 종교 축제이자 가톨릭교의 공식 종교 축일 '성 패트릭 데이'도 이모지로 제작,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 '베삭(Vesak)데이'는 물론, 불교 관련 이모지는 누락됐다.

스마트폰 이용과 온라인 채팅 활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모지가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어도비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68%는 온라인 대화 시 단어를 이모지로 대체한다고 답했다. 또한 88%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모지가 정서적 교류와 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동의했다. 때문에 불교 이모지 소외가 고착화될 경우 향후 글로벌 전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이모지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이모지에 불교 사찰을 포함하는 것은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그간 불교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뉴미디어·디지털 환경에 적응과 대응이 미숙해 이번 이모지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굳어지면 불교의 미래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기공 · 시삽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주춧돌에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태고종·中불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 건립한다

11월 27일 후저우 천호암서 기공식
승려교육, 연구 위한 MOU 체결도
천호암 부지에 1200㎡ 규모로 조성
"태고 법손들 위한 구법 성지될 것"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선사 제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 받은 중국 후저우 천호암에 불교 전법·교류를 기리는 우호교류센터가 건립된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계룡 스님)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이하 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조성된 천호암 대웅보전 뒤편 부지에 건립되는 '법원루'는 1200㎡ 규모로 조성되며,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전법과 불교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전각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에 법원루 건립 기금 5만 위안(한화 1억여 원)을 기부했다. 나아가 양측 불교계는 승려교육, 공동 연구 등 원할한 교류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후저우시불교협의회장 계룡 스님(천호암 주지)은 "법원루 건립은 한국, 중국 불자들이 한 뿌리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임제의 법을 이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을 위한 전각에 언제라도 찾아와 우호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천호암은 한국불교 및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가 석옥 청공 선사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57세 제자로 의발을 전수 받은 곳"이라면서 "한중 양국 불교의 의미 있는 역사적 도량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법원루의 주춧돌을 시삽하는 의식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이는 임제 선풍을 크게 떨친 석옥 청공 선사에 이어 임제 정책 제19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 무한한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공식에 앞서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계는 천호암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봉행하며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선사를 예경했다. 11월 26일에는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했다.

〈태고종 방중 특집 12 · 13면〉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공로상에 일운 스님 · 정재화 불자
12월 4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1월 25일 불기2568(2024)년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포교대상은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불교적 자긍심 고취와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종정 표창) 수상자 돈관 스님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일상생활과 조화로운 지역포교 실천을 목표로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소임을 역임했다. 당시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개원을 비롯한 가람정비와 불교대학 개설을 통한 교육포교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해 선화여고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과 건



학위원장,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2대 이사장으로서 미래불자 양성에도 힘썼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춘 지원은 물론 장학제도를 통해 2000명의 불교계 장학생을 양성했다. 특히 동국대 29개 단과대학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하고, 불교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가치관이 인재양성에 자양분이 되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연말연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